

호세아에 나타난 두운법

유윤중*

1. 시작하는 말

구약성서 히브리어 문학 기법 연구는 영문학을 비롯한 서구 문학 이론의 도움에 힘입어 최근 몇 십년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문학의 장르를 가장 큰 범주로 구분하면 산문과 운문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장르별 연구가 최근 구약성서의 문학적 연구의 주된 흐름을 형성한다. 구약성서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장르는 ‘시’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하며 그 특징 및 기법에 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다. 그 가운데 히브리 시의 특징은 평행대구와 언어유희이다.¹⁾ 그 가운데 언어유희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며 산문과 운문 모두에 나타난다. 언어유희는 모호함을 특징으로 하며 유사한 음이나 동음이의어 혹은 다의미를 지닌 단어의 활용과 관련되어 있다.²⁾ 시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생각의 기발한 연결을 통해 기억의 용이함을 돕는다는 점에서 언어유희는 히브리 시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 한편 소리와 관련된 언어유희와 유사한 측면을 지닌 기법 가운데 두운법(alliteration)과

* Cornell University에서 고대 히브리어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구약학 교수. yoonyoung@hanmail.net.

- 1) 다음을 참고하라. 유윤중, “구약성서 히브리 시 평행대구 연구의 최근 동향”, 『한국 기독교 신학논총』 40 (2005), 5-28; “창세기에 나타난 야누스 평행대구의 문학적 역동성과 한글번역”, 『Canon & Culture』 12 (2018), 77-104; “언어유희와 아모스의 심판신약: 아모스 6:13-14; 7:7-9; 8:1-3을 중심으로”, 『Canon & Culture』 10 (2016), 123-146.
- 2) W. G. E. Watson,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s*, JSOTS 26 (Sheffield: JSOT Press, 1986), 237-249. 언어유희 가운데 유사한 음을 지닌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활용해 연결시킨 기법을 재담(paronomasia)이라고 부른다.

모운법(assonance)이 있다. 유사한 자음을 반복하는 것을 두운법, 유사한 모음을 반복하는 것을 모운법이라고 부른다. 이 두 기법 또한 구약성서에 자주 나오며,³⁾ 고대근동의 문학에도 나타난다.⁴⁾ 두운법과 모운법의 대표적인 예는 창세기 2:25의 **מִן־הָעֵץ**(별거벗은)과 3:1의 **מִן־הָעֵץ**(간교한)이다. 에덴에서의 타락을 다루는 이야기에 나타나는 두 단어가 유사한 자음과 모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성서 히브리어 연구에 있어서 두 기법은 지금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⁶⁾

중세 시대부터 전개되어 온 서구 문학 전통에서의 두운법은 주로 단어의 첫 자음으로 구성된다. ‘두운법’으로 번역된 영어의 Allitera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라티라(latira) ‘알파벳 글자’에서 유래되었다. 즉 유사한 알파벳 가운데 동일한 자음이 단어의 첫 알파벳에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문

3) 두운법은 가장 간단하며 빈번하게 활용되어 온 오래된 문학 기법에 속하며 구약성서에 관한 연구도 이미 이루어져 왔다. 두운법에 관한 소개 및 연구는 다음을 보라. I. M. Casanowicz, *Paronomasia in the Old Testament* (Boston: Cushing, 1894), 8; W. G. E. Watson,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s*, 225-229; L. Boadt, “Intentional Alliteration in Second Isaiah”, *CBQ* 45 (1983), 353-363; David F. Pennant, “Alliteration in Some Texts of Genesis”, *Biblica* 68 (1987), 390-392. 히브리어 산문에 나타난 두운법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Gary A. Rendsburg, “Alliteration in the Exodus Narrative”, C. Cohen, et al, eds., *Birkat Shalom: Studies in the Bible, Ancient Near Eastern Literature, and Postbiblical Judaism Presented to Shalom M. Paul on the Occasion of His Seventieth Birthday* (Winona Lake: Eisenbrauns, 2008), 83-100; Gary A. Rendsburg, “Alliteration in the Book of Genesis”, Elizabeth R. Hayes and Karolien Vermeulen, eds., *Doubling and Duplicating in the Book of Genesis: Literary and Stylistic Approaches to the Text* (Winona Lake: Eisenbrauns, 2016), 79-95. 모운법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보라. Paul P. Saydon, “Assonance in Hebrew as a Means of Expressing Emphasis”, *Biblica* 36 (1955), 36-50; Lawrence Zaleman, “Ambiguity and Assonance at Zephaniah 2:4”, *VT* 36 (1986), 365-371; Judith H. Newman, “Beauty and the Aesthetics of Poetry in the Bible”, *Touchstone* 36 (2018), 14-21.

4) 우가리트 문학에 나타난 두운법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B. Margalit, “Alliteration in Ugaritic Poetry: Its Role in Composition and Analysis [I]”, *UF* 11 (1979), 537-557; B. Margalit, “Alliteration in Ugaritic Poetry: Its Role in Composition and Analysis [II]”, *JNSL* 8 (1979), 57-80.

5) 대표적으로 다음을 보라. V.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0), 187.

6) 렌드스버그(Gary A. Rendsburg)는 두운법에 관한 연구가 학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특히 산문에서 더 그렇다고 주장한다. Gary A. Rendsburg, “Alliteration in the Exodus Narrative”, 83. 하지만 필자는 시(poetic texts)에서도 여전히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시편의 경우도 많은 경우 연구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제의나 예배에 실제로 낭송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시편 내의 모음집, 예를 들어 왕위 즉위 시편(93, 96-99편)이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120-134편)에서의 두운법은 부분적으로 지적될 뿐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학적 기법을 가리킨다.⁷⁾ 하지만 구약성서 히브리어 문학에서 그 양상은 다소 다르다. 단어의 첫 자음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다소 떨어진 곳에서도 유사 자음의 연결을 통한 두운법이 형성된다.⁸⁾ 이에 대해 렌드스버그(Gary A. Rendsburg)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서 히브리어의 두운법은 고대 영어나 게르만 문학과는 달리 가끔 나온다. 그러나 그 기법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는 훨씬 빈번히 나타난다. 그것은 시에서뿐만 아니라 산문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특히 고대의 작가들은 근처에 있는 다른 단어들과 두운을 형성할 수 있는 드문 단어를 선택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어휘를 찾았다. 그러나 음 유희(soundplays)는 소리로 청중에게 전달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⁹⁾

이 글에서 필자는 ‘호세아에 나타난 두운법’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자음이 뚜렷하게 반복되어 나올 경우 궁극적으로 모든 예를 두운법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문법적 형태에서 발생하는 두운법의 경우, 예를 들어 동사의 부정사 절대형 + 한정동사 미완료 형태가 동일한 어근으로 형성될 경우(כִּי־זָנָה תִּזְנֶה 호 1:2)나 동일한 단어가 단순 반복되는 경우(אִשֶּׁת זְנוּנִים וְיִלְדֵי זְנוּנִים 호 1:2)는 제외하고자 한다.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유사한 자음을 반복 활용했다고 판단될 경우로 한정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호세아의 본문은 매우 난해하고 복잡하지만 풍부한 은유와 다양한 시적기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호세아에 나타난 두운법 역시 대부분의 주석과 연구에 언급되어 있다.¹⁰⁾ 하지만 대부분 주된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간

7) Chris Baldick, “alliteration”, *Oxford Concise Dictionary of Literary Term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6. 두운법은 영문학에서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존 밀턴(John Milton)의 실낙원의 시구는 다음과 같은 자음반복(이텔릭체)의 형태를 띤다.

*Behemoth biggest born of earth upheaved His vastness.
Fleeced the flocks and bleating rose (Book VII, 470-71).*

한편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시 ‘눈 내리는 저녁의 숲길에 서서’라는 시에서는 k라는 자음의 반복이 시구의 마지막에 위치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He gives his harness bells a shake
To ask if there is some mistake.
The only other sound's the sweep
Of easy wind and downy flake.*

8) 구약성서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자음의 반복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히브리어에서는 유사한 자음의 반복도 두운법으로 다룬다. W. G. E. Watson, *Classical Hebrew Poetry*, 225.

9) Gary A. Rendsburg, “Alliteration”, *Encyclopedia of Hebrew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1 (Leiden: Brill, 2013), 86-87.

10) 대부분의 호세아 주석에도 간헐적으로 나온다. 다음을 보라. F. I. Anderson and D. N. Freedman, *Hosea*, AB (Garden City: Doubleday, 1980), 138, 518, 618.

혈적으로 언급될 뿐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주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베르스(N. R. Werse)는 호세아 4장의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관련된 다양한 두운법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먼저 4:16의 **יִשְׂרָאֵל**과 관련된 두운법을 제시한다. 그 앞에 위치한 **סָרַר סָרָרָה**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4:18의 **רָק** ‘벗어나다’, 4:19의 **צָרָר** ‘감싸다’와 두운법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4:17의 **אֶפְרַיִם**은 4:16의 **כְּפָרָה** ‘암소처럼’과 두운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¹¹⁾ 패터슨(R. D. Patterson)과 힐(A. E. Hill)은 10:10에서 **בְּאֶסְרָם**의 사용은 두운법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어근은 두 의미로 번역될 수 있다. 먼저 **אָסַר** ‘징계하다’로 번역하는 경우이다(『개역개정』, 『새번역』, RSV). 또한 이 단어의 어근을 **אָסַר** ‘묶다’로 번역할 수 있다(NAS, NKJ). 이 경우 이 구절의 의미는 ‘그들의 두 가지 범죄에 대해 하나님이 묶을 때’가 된다. 어떤 의미를 선택하든지 10:10에서 **בְּאֶסְרָם**의 사용은 앞에 나오는 **וְאֶסְרָם** ‘내가 그들을 징계하리라’와의 두운법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¹²⁾ 카카나투(J. P. Kakkanattu)는 11:8에서 일곱 단어가 자음 **ק**로 끝나며 첫 단어 **קָאֵי**가 이 구절의 두운법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¹³⁾ 게일 리(Gale A. Yee)는 11:8에 나타난 두 지명 **כְּאֶדְמָה** ‘아드마 같이’과 **כְּסְבוֹיִם** ‘스보임 같이’의 사용에 주목하였다. 보다 일반적인 지명인 ‘소돔과 고모라’ 대신에 왜 ‘아드마와 스보임’이 사용되었냐는 것이다. 게일 리는 그 이유를 11:8에 이어서 나오는 **א**두운법 때문으로 풀이하였다. 11:8에는 첫 단어에서 열 번째 단어까지 **א**이 연속으로 나온다. 이 주장은 신명기 29:23[22]에 나오는 ‘스보임’의 철자에는 **א**이 빠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¹⁴⁾

위의 예들이 보여 주듯이 지금까지 연구된 호세아의 두운법에 관한 논의는 주로 4:16-19; 10:10; 11:8 등에서 이루어져 왔다. 필자는 간헐적으로

11) N. R. Werse, *Reconsidering the Book of the Four: The Shaping of Hosea, Amos, Micah, and Zephaniah as an Early Prophetic Collection* (Berlin/Boston: De Gruyter, 2019), 93.

12) R. D. Patterson and A. E. Hill, *Minor Prophets: Hosea-Malachi* (Carol Stream: Tyndale House, 2008), 62.

13) J. P. Kakkanattu, *God's Enduring Love in the Book of Hosea: A Synchronic and Diachronic Analysis of Hosea 11,1-11* (Tübingen: Mohr Siebeck, 2006), 75. 홍성혁은 11:8에 4회의 **א**과 12:2에 3회의 **ק**가 두운법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Seong-Hyuk Hong, *The Metaphor of Illness and Healing in Hosea and Its Significance in the Socio-Economic Context of Eight-Century Israel and Judah* (New York: Peter Lang, 2006), 133.

14) Gale A. Yee, *Composition and Tradition in the Book of Hosea: A Redaction Critical Investigation* (Atlanta: Scholars Press, 1987), 224-225.

이루어진 두운법 연구를 호세아 전체에 걸쳐 논의하고자 한다.¹⁵⁾ 아울러 지금까지의 연구는 두운법의 형성 자체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으며, 소리의 기발한 연결을 통해 기억의 용이함을 돕기 위한 기능으로 제한시켰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두운법이 소리의 연결뿐만 아니라 의미의 연결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화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두운법 연구는 두운법의 형성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두었을 뿐 의미 강화를 위한 문학적 현상으로 다루지 않았다.

2. 호세아에 나타난 두운법

2.1. 1:2

תְּחִלַּת דְּבַר־יְהוָה בְּהוֹשֵׁעַ
וַיֹּאמֶר יְהוָה אֶל־הוֹשֵׁעַ
לֵךְ קְהֵלָךְ אִשָּׁת וְנַגְנִים וְנַגְנִים
כִּי־זָנָה תִּזְנֶה הָאָרֶץ מֵאֲחֵרֵי יְהוָ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1:2에서 두운법은 야웨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는 명령문에 나온다. קְהֵלָךְ לָךְ ‘(너는) 가서 너를 위해 취하라’에서 קְהֵלָךְ와 לָךְ사이에는 두운법이 작용한다. 첫 단어 קְהֵלָךְ는 히브리어 동사 קָהַל의 명령형이며, לָךְ는 전치사 לְ와 2인칭 남성 접미어 ךָ가 결합된 것이다. 두 단어는 다른 의미이지만 동일한 자음의 반복이라는 점에서 두운법을 형성한다. קְהֵלָךְ가 명령문의 처음에 올 경우 그 의미는 강화된다.¹⁶⁾

15) 호세아의 마소라 본문은 매우 난해하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본문의 재구성에 노력해왔다. 이 글에서는 마소라 본문을 재구성하는 시도는 하지 않고 전승되고 수용된 현재의 BHS에 근거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호세아 본문의 재구성을 시도한 연구가 BHS보다 신뢰도가 낮기 때문은 아니다. 그 이유는 공인되지 않고 재구성된 불확실한 본문에 근거할 경우 논의가 지나치게 복잡해져 논점이 분산될 수 있으므로 현재 수용된 본문을 두고 해석하는 편이 논의의 전개에 더 타당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본문의 행 구분은 BHS를 따르며, 제시된 번역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개역개정』이며, 필자의 개인적인 번역은 시작부분에 ‘(사역)’이라고 명시하였다.

16) F. I. Andersen and D. N. Freedman, *Hosea*, 156.

본문의 קָהָלָה는 ‘결혼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창 4:19; 24:3, 67; 34:4; 렘 29:6).¹⁷⁾ 따라서 본문의 두 단어 קָהָלָה와 קָהָלָה는 두운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 가라’는 의미의 형성을 통해 ‘결혼하라’는 메시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본문 외의 다른 구절에서는 두운법이 형성되지 않는다.

2.2. 1:4-5

וַיֹּאמֶר יְהוָה אֵלָיו
 קְרָא שְׁמוֹ יִזְרְעֵאל כִּי־עוֹד מְעַט
 וּפְקַדְתִּי אֶת־דָּמִי יִזְרְעֵאל עַל־בֵּית יְהוּא
 וְהִשְׁבַּתִּי מִמְּלָכּוֹת בֵּית יִשְׂרָאֵל
 וְהָיָה בַיּוֹם הַהוּא
 וְשָׁבַרְתִּי אֶת־קֶשֶׁת יִשְׂרָאֵל בְּעַמְּקֵי יִזְרְעֵא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4절)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5절)

1:4-5에는 호세아의 장남 이스라엘과 야웨의 심판의 대상인 이스라엘 사이에 두운법이 뚜렷이 형성된다. יִזְרְעֵאל은 호세아의 장남의 이름이면서 예후 혁명으로 인하여 처단된 이세벨 사건의 배경이 된 장소로 언급된다(왕하 9:30-37, 참고 왕상 21:13). ‘씨를 뿌리다’는 어근 זרע에서 왔으며 ‘하나님이 씨를 뿌리다’를 의미한다. 한편 יִשְׂרָאֵל은 북 왕국을 가리키는 명칭이면서 조상 야곱의 다른 이름이다. ‘다투다, 겨루다’를 의미하는 어근 שרה에서 왔으며 ‘하나님과 다투는 자’를 의미한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예후 왕조가 다스리는 나라이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의미의 유사성은 없지만, 음가의 유사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וֵ과 שֵ은 둘 다 치음으로 상호간에 음의 유사함을 형성한다.

이름을 지은 뒤(1:4상), 심판 신탁(1:4하-5)에서 두 단어는 이스라엘-이스라엘-이스라엘의 순서로 나와 교차대구(chiasm) 구조를 형성해 두 단어가 소리뿐만 아니라 문학적 구조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아울러 두 단어 사이의 두운법은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이 흘렸던 피를 이스라엘

17) A. A. Macintosh, *Hosea*, ICC (Edinburgh: T & T Clark, 1997), 8.

의 예후 왕조에게 되갚겠다는 심판 선언으로 의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¹⁸⁾

2.3. 2:12[14]

וְהִשְׁמַתִּי גִפְנֵה וּתְאֲנִתָּה אֲשֶׁר אָמַרְהָ
אֲתָנָה הַמָּה לִּי אֲשֶׁר נָתַנְנִי לִי מֵאֲהָבָי
וְשִׁמְתִים לְיֵעַר וְאֶכְלֹתֶם חֵיט הַשָּׂדֶ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 구절에서 두운법은 תְּאֲנִתָּה ‘그녀의 무화과나무’와 אֲתָנָה ‘값’과 נָתַנְנִי ‘그들이 주었다’ 사이에 형성된다. 앞의 두 단어 사이에는 철자의 순서가 바뀌기도 하지만 א과 ת와 נ과 ה 사이에 두운법이 형성되며, 세 단어 사이에는 ת와 נ이 반복되어 두운법을 형성한다. 이 세 단어 사이의 두운법에 대해서 매킨토시(A. A. Macintosh)는 언어유희로 다루지만,¹⁹⁾ 구체적으로 두운법에 해당한다. 세 단어 가운데 논의의 핵심이 되는 단어는 אֲתָנָה이다. 이 단어는 본문에만 나오는 것으로 אֲתָנָה(신 23:18[19]; 사 23:18; 호 9:1)의 변형으로 보인다. 이 단어의 어근은 ‘주다’의 נָתַן 혹은 ‘고용하다’의 תָּנָה에서 온 것으로 추측된다. 이 단어의 유래가 어떠한지 그 의미는 ‘창녀에게 치르는 값’이다.²⁰⁾ אֲתָנָה 대신에 אֲתָנָה가 사용된 것은 תְּאֲנִתָּה와의 두운법 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אֲתָנָה의 사용으로 앞의 두 단어 אֲשֶׁר אָמַרְהָ와 א이 세 번 연속으로 나오는 두운법을 형성한다.

이 구절에서 핵심적인 두운법을 형성하는 세 단어 가운데 원천이 된 단어는 תְּאֲנִתָּה이다. ‘무화과나무’(תְּאֲנִתָּה)는 창녀에게 ‘주는’(נָתַנְנִי) ‘몸값’(אֲתָנָה)이라는 의미에서 세 단어는 음가뿐만 아니라 의미의 형성과 연결의 원천이 된다.

18) 호세아에 나오는 예후 왕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긍정적으로 묘사한 왕하 9-10장의 내용과 차이가 난다. 이 차이는 호세아 당시(주전 850년경) 친 아시리아 정책에 기반하여 사회적 불의를 행하였던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의 정책에 대한 비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을 보라. M. A. Sweeney, *The Twelve Prophets*, vol. I (Berit Olam;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0), 18-20.

19) A. A. Macintosh, *Hosea*, 63-64. 매킨토시(A. A. Macintosh)는 자음보다는 유사음에만 초점을 두고 언어유희로 보았지만, 필자는 유사한 자음이 반복된다는 의미에서 두운법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파악한다.

20) Yoon Jong Yoo, “Israeli Hebrew in the Book of Hosea”, Ph.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1999), 48.

2.4. 4:9

וְהָיָה כָּעֵם כִּפְהֵן
וּפְקָדְתִּי עָלָיו דְּרָכָיו וּמַעֲלָלָיו אָשִׁיב לוֹ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 구절에서의 두운법은 עָלָיו ‘그 위에’와 מַעֲלָלָיו ‘그의 행위’ 사이에 형성된다. 첫 단어 전치사 על은 ‘-위에’를 의미하며, 둘째 단어 מַעֲלָלָיו는 어근 עלל ‘계속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다’²¹⁾에서 온 명사이다. 이 단어는 호세아에 자주 나오며(5:4; 7:2; 9:15; 12:2[3]), 9:15에서도 이 구절과 동일하게 전치사 על과 두운법을 형성한다.

두 단어 사이의 의미를 종합하면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이다. 즉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야웨께서 갚을 것이라는 심판 선언에 두 단어는 두운법과 의미로 서로 연결되어 의미의 강화에 기여한다.

2.5. 4:16-17

כִּי כִפְרָה סִרְרָה סִרְרָה יִשְׂרָאֵל
עֵתָה יִרְעֵם יְהוָה כְּכֹבֵשׁ בְּמִרְהָב
חֲבוּר עֲצָבִים אֶפְרַיִם הַנְּחֻלּוֹ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
느냐(16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 두라(17절)

위에서 언급한 대로 4:16에서 כִּפְרָה와 סִרְרָה와 סִרְרָה와 יִשְׂרָאֵל 사이의 두운법은 이미 베르스에 의하여 지적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16절의 마지막 단어 מִרְהָב와 17절의 첫 단어 חֲבוּר 사이의 두운법 형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6절의 מִרְהָב는 어근 רחב에서 온 명사로 ‘넓은 공간’을 의미한다. 17절의 חֲבוּר는 어근 חבר에서 온 동사의 분사형으로 ‘연합되어’를 의미한다. 호세아에서 이 어근은 6:9의 חֲבֵר ‘무리’로 나온다. 앤더슨(F. I. Andersen)과 프리드만(D. N. Freedman)은 이 단어를 신명기와 시편에서의 용례(신 18:11; 시 58:5[6])를 빌어 ‘마법이나 주문에 걸린 사람들의 무리’라

21) HALOT, 834.

고 해석한다.²²⁾ 두 단어의 자음은 동일하게 כ, ה, ר로 구성되지만, 둘째 단어는 히브리어 철자의 순서가 바뀐 חֲבֵרָה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두 단어의 철자가 전환되어 두운법을 형성한다.

두운법을 형성하는 두 단어 사이의 의미의 연결은 자연스럽지 않다. 다만 대비되는 16하반절과 17상반절의 의미와 관련지어 논의할 수 있다. 야웨는 이스라엘에게 ‘넓은 공간(מְרוֹחַ)’을 제공했지만, 이스라엘은 야웨를 거부하고 우상들과의 ‘연합(חֲבֵרָה)’이라는 배은망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두 단어 사이의 두운법은 소리를 넘어 의미로 연결된다.

2.6. 5:14-15

כִּי אֲנֹכִי כַשְׁחַל לְאֶפְרַיִם וְכַכְפִּיר לְבֵית יְהוּדָה
אֲנִי אֲנִי אֶטְרֶף וְאֶלֶף אֶשָּׂא וְאֵין מִצִּיל
אֶלֶף אֶשׁוּבָה אֶל־מְקוֹמִי
עַד אֲשֶׁר־יִאֲשְׁמוּ וּבִקְשׁוּ פָנָי
בְּצַר לָהֶם יִשְׁחַרְגְּנִי

(사역) 나는 에브라임에게는 사자처럼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처럼 나는 찢고 가서 탈취할 것이지만 구해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14절). 그들이 뉘우치고 나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환난의 때에 그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15절).²³⁾

5:14-15에서의 두운법은 א의 반복에 있다. א으로 시작하는 첫 단어는 ‘나’를 의미하는 인칭대명사 אֲנֹכִי이다. 14하반절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1인칭 단수 인칭대명사 אֲנִי가 2회 연속으로 나온다. 이어서 14하반절의 미완료형에서 1인칭 단수를 나타내는 א이 3개의 동사에 연속으로 나온다. אֶטְרֶף אֶשָּׂא וְאֶלֶף ‘내가 찢을 것이다. 내가 갈 것이다. 내가 들어 올릴 것이다.’ 이어서 ‘없다’를 의미하는 אֵין이 나온다. 14절에서 14개의 단어 가운데 8개 단어에 걸쳐 א이 나오며, 14하반절에는 7개 단어 가운데 마지막 단어를 제외한 6개에 א이 연속적으로 나온다. 유사한 흐름은 15상반절에 이어진다. 15상반절에는 미완료형 1인칭 단수를 나타내는 א이 시작하는 두 단어에 연속으로 나온다. אֶלֶף אֶשׁוּבָה ‘나는 갈 것이며 돌아갈 것이다.’ 그 외에도 15절에는 추가적으로 세 단어에 א이 나와 15절 전체의 א의 두운법 형성에 기여한다.

22) F. I. Andersen and D. N. Freedman, *Hosea*, 378.

23) 이 부분의 『개역개정』은 마소라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사역에서 ‘나는’이라는 단어의 반복을 통해 א두운법을 번역에 반영하였다. 이것은 이 논문을 무명으로 심사한 심사자의 의견으로 필자는 그 의견을 수용하였다.

14-15절에는 1인칭 인칭 대명사가 총 3회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완료형의 1인칭 단수를 나타내는 기능으로 א이 다섯 단어에 나온다. 14-15절의 א은 야웨가 1인칭으로 등장해 선언하는 심판 및 구원 신탁에서 1인칭 인칭 대명사 אָנֹכִי의 의지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은 14-15절의 전후에 놓인 13절과 6:1에서 1인칭 사용이 없다는 점에서 14-15절의 특징은 더 명확히 드러난다. 따라서 14-15절에서의 א두운법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은 바로 ‘나’ 즉 야웨라는 메시지의 강화에 기능한다.

2.7. 6:10

בְּבֵית יִשְׂרָאֵל רָאִיתִי שְׁעֵרִירָה
שָׁם זָנוּת לְאִפְרַיִם נִטְמָא יִשְׂרָאֵל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 구절에는 יִשְׂרָאֵל이 시작과 마지막에 나오며 가운데 שְׁעֵרִירָה(Q שְׁעֵרוּרָה)가 나와 두 단어 사이에 두운법을 형성한다. 두 단어 사이에는 공통된 자음 ו와 ר 외에 유사한 치음인 ש과 ש, 후음인 א과 ע을 통해 두운법을 형성한다. 즉 ‘이스라엘’에서 ‘샤아리리야’를 보았다는 것이다. 히브리어 שְׁעֵרִירָה는 호세아에만 나오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어근 שַׁעַר의 대표적인 의미인 ‘문’ 혹은 ‘측량하다, 계산하다’와는 관련이 없다. 이 어근의 의미는 아랍어 sa‘ara ‘불을 놓다, 악행을 행하게 하다’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아랍어 어근 grr ‘속이다, 잘못 인도하다’의 샤펠(safel) 형태와 관련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²⁴⁾ 따라서 שְׁעֵרִירָה의 의미는 ‘끔찍한 일, 가증한 일’을 가리킨다. 이 어근은 본문 외에도 예레미야 5:30; 18:13; 23:14; 29:17에도 유사한 의미로 나온다.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이 저지른 끔찍하고 가증스런 행위를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스라엘과 שְׁעֵרִירָה의 두운 형성은 4:16의 יִשְׂרָאֵל סָרַר סָרָר ‘완고한 이스라엘은 완고하니’에서의 두운 형성과 유사하다.²⁵⁾

4:16에 형성된 두운법에서 지적하였듯이 이스라엘은 완고하여 자기 고집대로 행하였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이름에 어울리는 가증스런 일을 행하였다. 10상반절에서 말하는 ‘가증한 일’은 10하반절에 언급된 ‘음행’이

24) HALOT, 1614.

25) יִשְׂרָאֵל과 סָרַר사이의 두운법은 N. R. Wense, *Reconsidering the Book of the Four*, 93을 보라.

다. 따라서 10절의 두운법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죄를 고발하는 메시지 형성에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2.8. 7:4

כָּלֶם מְנַאֲפִים כְּמוֹ תַנּוּר בְּעֵרָה
מֵאֲפָה יִשְׁבוֹת מְעִיר מְלוּשׁ בְּצַק עֲרֻחַמְצָתוֹ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궜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나라

이 구절에는 כָּלֶם과 כְּמוֹ, מְנַאֲפִים과 מֵאֲפָה 사이에 두운법이 형성된다. 두운법의 형성은 4상반절에 나타난다. כָּלֶם ‘그들 모두’와 כְּמוֹ ‘그들같이’ 사이에는 자음 כ와 מ이 반복됨으로써 두운법이 이루어진다. 두 단어 사이에 공유되는 의미는 ‘그들’로 문맥상 1절에서 악행을 일삼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또한 מְנַאֲפִים ‘간음하는 자’와 מֵאֲפָה ‘빵 굽는 자’ 사이에는 세계의 자음 מ가 반복되어 두운법을 구성한다. מְנַאֲפִים은 어근 נִאֵף ‘간음하다’의 피엘 분사형이며 מֵאֲפָה는 어근 אָפַה ‘굽다’의 칼 분사형으로 문자적 의미로는 연결점이 없다. 다만 두운법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구절에서 ‘간음’은 ‘빵을 굽는 일’에 비유되어 나온다. 빵을 굽기 위해서는 빵을 굽는 자가 화덕을 달구어야 한다. 그 과정은 간음에 비유된다. 이는 『새번역』에 보다 실감나게 번역되어 있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 있다.”²⁶⁾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을 행하는 과정을 빵 굽는 자가 화덕을 달구는 과정으로 비유해 설명한다. 따라서 두 단어 사이의 두운법은 의미의 연결을 형성해 메시지를 강화해 준다.²⁷⁾

2.9. 7:9

אֲכָלוּ זָרִים כַּחוֹ וְהוּא לֹא יָדַע
גַּם־שִׁיבָה זָרְקָה בּוֹ וְהוּא לֹא יָדַע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26) 『새번역』은 מֵאֲפָה를 7:4하반에 두고 번역한다. 하지만 마소라에서 아트나는 מֵאֲפָה에 위치한다. 따라서 7:4상반에 연결시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27) 7:4는 7:6-7과 단어 및 이미지들이 반복되어 나와 왕과 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자들이 저지르는 간음을 빵을 굽기 위해 화덕을 뜨겁게 하는 일 사이를 연결시켜 설명한다. 자세한 연결점은 F. I. Andersen and D. N. Freedman, *Hosea*, 447-461을 보라.

이 구절에는 **וְהוּא לֹא יָדַע** ‘그가 알지 못하였다’가 반복되어 평행대구를 형성하며, **יָרִים**과 **יָרָקָה** 사이에 두운법이 형성된다. **יָרִים**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며, **יָרָקָה**는 ‘흠어진’을 의미한다. 두 단어의 어근은 각각 **רָק** ‘이상한, 낯선’과 **רָק** ‘뿌리다’이다. 두 단어 사이의 의미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평행대구에서 **יָרִים** ‘이방인들’은 **יָרָקָה** ‘흠어진 백발’과 짝 단어를 이룬다. 따라서 ‘이방인’은 ‘흠어진 백발’과 유사한 의미이다. 이방인들이 에브라임의 힘을 삼키는 행위는 흠어진 백발이 그 안에 퍼져 나가는 것과 비교된다.

시인은 이방인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스라엘에 침투해 점령하는 과정을 백발 몇 개가 아무도 모르게 점차로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으로 비유해 설명한다. 평행대구의 A행에서는 흔한 단어가 나오지만 시인은 보다 드문 시어와 이미지를 가지고 와 B행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낯선 의미와 이미지이지만 두운법의 형성을 통해 짝 단어로서 기능하며 이 구절에서 보다 생생한 의미 전달에 기여한다.

2.10. 7:13-16

אוֹי לָהֶם כִּי־נָדְדוּ מִמּוֹנֵי שָׂדֶה לָהֶם כִּי־פָשְׁעוּ בִּי
וְאַנְכִי אֶפְדֶּם וְהִמָּה דִבְרוּ עָלַי כְּזָבוּבִים
וְלֹא־זָעֲקוּ אֵלַי בְּלִבָּם כִּי יִלְלוּ עַל־מִשְׁכַּבֹּתָם
עַל־דָּגָן וְתִירוֹשׁ יִתְגַּדְּרוּ יִסְוְרוּ בִּי
וְאַנִּי יִסְרֹתִי חֲזַקְתִּי זְרוּעֹתַם וְאֵלַי יִחְשְׁבוּ־רָע
יָשׁוּבוּ לֹא עַל הָיִו כְּקִשְׁתֹּת רַמְיָה
יִפְּלוּ בַחֲרֹב שָׂרִיָהֶם מִזֶּעֶם לְשׁוֹנָם
זֹ לְעֵגֶם בְּאֶרֶץ מִצְרָיִם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갓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13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임에 나를 거역하는도다(14절)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15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16절)

이 단락에 나타난 두드러진 두운법은 전치사 **עַל** ‘위에, 대항하여, 관하

여'와 관련되어 형성된다. 13절에 처음 나오는 **עָלַי**는 '나에 대항하는, 나에 관한'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지적하는 13절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עָלַי** '나에 대항하는'이라는 이 한 단어에 축약되어 있다. 이 단어는 14절의 **עַל-מִשְׁכְּבוֹתָם** '침상 위에서'와 **עַל-הָאֵפוֹן וְהַיַּיִן** '곡식과 새 포도주 위에서'로 두 번 더 나온다. 14절에서 **עַל**의 의미는 '위에'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대상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יִלְלוּ** '그들이 울부짖다'와 **ל**의 반복으로 두운법이 형성된다.²⁸⁾ 또한 **עַל-לֹא-זָעַקוּ אֱלֹהֵי**에 나오는 두운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לֹא**와 **אֱלֹהֵי**는 철자가 뒤바뀌어 나온다는 점에서 언어유희의 의도를 읽을 수 있으며, **אֱלֹהֵי**는 앞의 13절에 나오는 **עָלַי**와도 두운법을 형성한다. 전치사 **עַל**을 이용한 두운법의 절정은 **עַל לֹא**에 나온다. **עַל**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지만 호세아에서 이 단어는 11:7에 한 번 더 나오며 '지극히 높은 분'을 의미한다.²⁹⁾ 따라서 16절의 첫 부분인 **עַל לֹא יָשׁוּבוּ**에 대한 번역은 '그들은 지극히 높은 분이 아닌 것으로 되돌아가다'이다.³⁰⁾ 16절의 **עַל לֹא**은 13-14절에 나오는 전치사 **עַל**을 활용한 두운법의 절정에 해당한다.

이 단락에서 전치사 **עַל**은 13절에 '대항하여'를 뜻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는 단어로 처음 나와 14절에서 몇 단어들과 두운법을 형성하며 두 번 더 나오다가 16절에서 '위에 계신 분'으로 의미가 확대된 명사로 나와 절정을 형성한다. 이스라엘은 '지극히 높은 분'에게 돌아와 의지한 것이 아니라 '침상과 곡식과 새 포도주 위에' 기반하여 흥청망청 살아가는 자들로 묘사된다. 이 단락에서 **עַל**은 유사한 음가의 단어들과 두운법을 형성하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야웨를 배반하였는가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2.11. 8:7

כִּי רוּחַ יִזְרְעוּ וְסוּפְתָהּ יִקְצְרוּ
קָמָה אֵינְלוּ צָמַח בְּלִי יַעֲשֶׂה-קָמַח
אוֹלֵי יַעֲשֶׂה זָרִים יִבְלְעוּהוּ

(사역) 그들이 바람을 뿌릴지라도 폭풍을 거둘 것이라
출기가 있을지라도 이삭이 없을 것이며 곡식을 맺을 수 없을 것이라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28) 두운법은 자음의 엄격한 일치가 아니라 유사한 소리의 연결을 통해 형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עַל יִלְלוּ**는 두운법이다.

29) 자세한 설명은 A. A. Macintosh, *Hosea*, 285를 보라.

30) 볼프(Hans W. Wolff)는 이 본문을 칠십인역에 근거해 본문의 오류로 보고 '그들은 돌아오지만 나에게서는 아니다'로 번역한다. Hans W. Wolff, *Hosea*, G. Stansell, trans. (Philadelphia: Fortress, 1974), 108. 하지만 이 본문은 볼프에 의해 수정된 의미보다는 현재의 본문에 따라 13-16절에 나오는 **עַל**의 두운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구절에서는 קָמָה ‘줄기’와 צָמָה ‘이삭’과 קָמָה ‘곡식’ 사이에 두운법이 형성된다. 세 단어 모두에 공통으로 나오는 자음은 מ이다. 첫 단어와 셋째 단어 사이에는 קמ이 반복되며, 둘째 단어와 셋째 단어 사이에는 ממה가 반복되어 나온다.

첫째 단어인 קָמָה는 어근 קָמַ ‘일어나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들어서 있는 것’을 의미하며³¹⁾ 구체적으로 ‘서 있는 곡식, 줄기’ 등 다양한 의미로 나온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줄기’를 의미한다.³²⁾ 둘째 단어인 צָמָה의 어근은 ‘싹이 나다’에서 온 것으로, 줄기에서 뻗어 나와 형성된 이삭을 가리킨다. 식물의 발달 과정에서 보아 싹을 틔울 수 있는 씨앗을 담은 완전히 성장한 단계, 즉 이삭을 가리킨다.³³⁾ 셋째 단어인 קָמָה는 수확 후 제분되기 전의 열매 형태로 된 곡식을 가리킨다.³⁴⁾ 이 세 단어는 ‘식물이 자라 줄기를 형성하고, 이삭을 맺고, 수확 후 거둬들인 곡식’에 이르는 세 단계를 보여 준다. 따라서 세 단어는 두운법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의미에 있어서도 단계별 과정임을 명백하게 보여 준다. 야웨의 심판이 궁극적으로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세 단어의 두운법과 성장 단계별 의미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

2.12. 9:3

לֹא יָשְׁבוּ בְּאֶרֶץ יְהוּדָה
וְשָׁב אֲפָרַיִם מִצְרַיִם וּבְאֶשׁוּר טָמְאָ יֹאכְלוּ

그들은 여호와와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앓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는 יָשְׁבוּ와 שָׁב 사이에 두운법이 형성된다. 첫째 단어인 יָשְׁבוּ는 어근 שָׁב ‘거주하다, 살다’에서, 둘째 단어인 שָׁב는 어근 שָׁב ‘돌아가다’에서 왔다. 그러나 두 단어는 두 자음 שב로 두운법을 형성한다.

두 단어는 9:3의 예언자의 심판 선언에서 핵심어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야웨의 땅에 살지 못한다는 의미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야웨의 땅은 약속의 땅이므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살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라는 심판 선언이다.

31) HALOT, 1107.

32) 창 41:5, 22의 קָמָה ‘줄기’는 קָמָה로 읽을 수 있다. Hans W. Wolff, *Hosea*, 132.

33) A. A. Macintosh, *Hosea*, 312. 아울러 이 단어는 예언서에서 다윗 가문에서 나올 특별한 인물을 가리키는 ‘싹’을 의미하기도 한다(렘 23:5; 33:15; 스 3:8; 6:12).

34) HALOT, 1107-1108.

2.13. 10:8-9

וְנִשְׁמְדוּ בְּמוֹת אֲנֹן חֲטָאת יִשְׂרָאֵל
 קוֹץ וְדַרְדַּר יַעֲלֶה עַל-מִזְבְּחוֹתָם
 וְאָמְרוּ לְהָרִים כְּסוּנוֹ וְלִגְבְּעוֹת נָפְלוּ עָלֵינוּ
 מִיְמֵי הַגְּבָעָה חֲטָאת יִשְׂרָאֵל שָׁם עָמְדוּ
 לְאִתְּשִׁיגָם בְּגִבְעָה מִלְחָמָה עַל-בְּנֵי עֲלִיָּה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 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8절)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
 겠느냐(9절)

위의 7:13-16에서처럼 이 단락에도 전치사 על을 이용한 두운법이 폭넓게 활용된다. 전치사 על이 8상반절 על-מִזְבְּחוֹתָם ‘제단 위에,’ 8하반절 עָלֵינוּ ‘우리 위에,’ 9하반절 עָלֵינוּ ‘범죄한 자손들 위에’ 3회 나온다. 전치사 על과 두운법을 이루는 첫째 단어는 יַעֲלֶה이다. 이 동사는 עלה ‘올라가다’를 의미한다. 즉 제단 위에 가시와 찔레가 올라올 것이라는 의미이다. 두운법을 형성하는 על יַעֲלֶה은 ‘-위에 올라오다’를 의미한다. 전치사 על을 이용한 언어 유희이기도 하다. על과 두운법을 이루는 둘째 단어는 עָלֵינוּ로 עלֵינוּ ‘범죄의 자녀에 대한’에 나온다. עלֵינוּ는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이지만 대부분의 역본에 따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악, 불의, 범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עלולה의 철자 위치전환(metathesis)으로 파악한다. 이 철자 위치 전환을 서기관 오류로 보기도 하지만,³⁵⁾ 그럴 필요가 없다. 이 철자 위치 전환은 앞에 위치한 전치사 על과 두운법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עלולה는 13절에 올바른 철자로 나오기 때문이다.

전치사 על과 관련된 두운법은 10:8-9 외에도 10장에 매우 폭넓게 나온다. 10장에는 전치사 על이 8-9절의 3회 외에도 4, 5(×2), 7, 10, 11절에 걸쳐 6회 나온다. 그 이유는 문학적인 면과 신학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문학적인 면에서 전치사 על의 폭넓은 사용과 활용은 5, 10절에 나오는 עָלֵינוּ ‘송아지’와의 두운법 형성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학적인 면에서 전치

35) A. A. Macintosh, *Hosea*, 412.

사 על의 의미와 관련지어 논의할 수 있다. 10장에는 제단, 주상(1절), 산당(8절) 등 높이 세운 종교적 우상들이 많이 나온다. 10장은 우상 숭배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위에’(על) 세운 온갖 우상들에 대해 비판하고 조롱한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높은’(על) 마음 때문이다. 따라서 10장에 나오는 전치사 על과 다양한 두운법은 문학적 신학적 연결점을 가지며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는 신학적 메시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2.14. 11:3

וְאַנְכִי תִרְנַלְתִּי לְאַפְרַיִם קָחַם עַל־זְרוּעֹתָיו
וְלֹא יָדְעוּ כִּי רִפְאוּתִים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구절에서는 אַפְרַיִם과 רִפְאוּתִים 사이에 두운법이 형성된다. אַפְרַיִם은 어근 פרה ‘열매 맺다’에서 유래되었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의 이름이다. רִפְאוּתִים은 어근 רפא ‘치료하다’에서 유래되었고 ‘내가 그들을 고쳤다’를 의미한다. 두 단어 사이에는 의미는 유사하지만 네 개의 자음의 순서는 다르다. 하지만 네 자음 사이에는 두운법이 형성된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첫째로 승격되고 이집트에서 올라와 북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지파가 되어 이름대로 ‘이중으로 풍성히 열매 맺은’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야웨가 그들을 고치는 자임을 알지 못한다. ‘고치다’는 단어와 ‘에브라임’과의 결합은 5:13에서도 나오지만 11:3만큼 의미가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는다. 5:13에서 ‘고치다’의 주어는 ‘야렘 왕’으로 나온다. 11:3에서 두 단어는 두운법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야웨가 에브라임을 고치는 자’라는 신학적 메시지를 전한다.

2.15. 11:4

בְּחִבְלֵי אָדָם אֲמַשְׁכֶּם בְּעֵבְתוֹת אֲהָבָה
וְאַהֲיָה לָהֶם כְּמִרְיָמִי עַל עַל לְחִיָּהֶם וְאַט אֵלָיו אוֹכִיל
וְאַט אֵלָיו אוֹכִיל

(사역)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턱 위까지 멩에를 끌어올리는 자같이³⁶⁾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구절에서는 명사 **על**과 전치사 **על** 사이에 두운법이 형성된다. 동일한 자음이지만 다른 의미로 연속으로 나온다. 명사 **על**은 ‘멍에’를 의미하며 전치사 **על**은 ‘위에’를 의미한다. 이 구절에서 전치사 **על**은 명사 **על**과 두운법을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멍에’는 속박의 상징이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보아 가축을 더 잘 보살피기 위한 도구이다. 본문은 소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턱 위까지 멩에를 올리는 동작으로 광야 생활 중의 야웨의 돌보심을 설명한다. 이 두 단어가 합하여 전하는 이미지와 의미는 모호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야웨의 돌보심을 묘사하는 데 두운법이 활용되었다.

2.16. 12:8[9]

וַיֹּאמֶר אֲפֹרִים אֵךְ עֲשֵׂרְתִי מִצְאֹתֵי אֹן לִי
כָּל־יְיָנִיעִי לֹא יִמְצְאוּ־לִי עֹן אֲשֶׁר־חָטָ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 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 구절에서 두운법은 **און**과 **עון** 사이에 형성된다. **און**은 ‘남성의 생산력’(창 49:3; 신 21:17; 시 78:51; 105:36) 혹은 ‘육체적인 힘’(호 12:3[4]; 욥 40:16) 혹은 ‘재물’(욥 18:12; 20:10) 등을 의미한다. 이 구절에서는 ‘재물’을 의미한다.³⁷⁾ 이 단어는 앞의 3[4]절에서 ‘육체적인 힘’의 의미로 나오기도 하며, 뒤의 11[12]절에는 동일한 자음의 **און** ‘불의, 재앙’이 나온다. **עון**은 ‘악, 죄악감’을 의미하는 단어로 호세아에 자주 나온다(호 4:8; 5:5; 8:13; 9:9; 10:10; 13:12). **און**과 **עון**은 둘 다 후음으로 시작하며 **ן**으로 마무리 된다는 점에서 두운법을 형성하지만 본격적인 연결은 에브라임이 모은 재물(**און**)이 불의(**עון**)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의(**און**)라는 이미지를 떠올

36) 이 부분에 대해 『개역개정』은 “그 목에서 멩에를 벗기는 자 같이”로, 『새번역』은 “그들의 목에서 멩에를 벗기고”로 번역한다. 이 부분의 이미지 구성 및 번역은 매우 난해하다. ‘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מִלְּחֵי**는 ‘턱, 뺨’을 의미한다. 아울러 히브리어 **בְּמַרְיָמוֹ**는 ‘올리다, 세우다’를 의미하는 동사의 분사형이다. 이 두 단어는 야웨가 사람의 줄로 어린이를 안내하는 이미지를 묘사하는 이전 행과 먹을 것을 주는 이후 행과 평행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이 두 단어는 어린이에게 음식을 먹이기 위해 멩에를 목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행의 ‘먹을 것을 두었다’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인 사건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다.

37) HALOT, 22.

리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17. 12:11[12]

אִם-גִּלְעָד אָנֹן אֶדְ-שָׁוָא הִיוּ בְּגִלְגָּל שְׁוָרִים זָבָחוּ
גַם מִזְבְּחוֹתָם בְּגִלְיָם עַל תְּלָמֵי שְׂדֵי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나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
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이 구절에서는 גִּלְעָד ‘길르앗’, גִּלְגָּל ‘길갈’, גִּלְיָם ‘돌무더기’ 사이에 두운법이 형성된다. 세 단어에는 자음 גּ이 공통적으로 나와 두운법을 형성한다. 길르앗은 원래 ‘갈르엣’으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의미를 지닌다(창 31:47-48). ‘무더기’는 히브리어로 גִּלְיָם이다. 따라서 길르앗과 무더기는 밀접하게 연결된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길갈과 관련되어 있다. 구약에서 길갈의 의미는 히브리어 어근 גָּל ‘굴러 사라지다’(roll away)에서 유래된 ‘이집트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다’로 해석된다(수 5:9). 하지만 גִּלְגָּל의 문자적 의미는 ‘둥근 돌무더기’이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넌 후 그것을 기념하여 돌 12개를 길갈에 세웠다(수 4:19-20). 따라서 길르앗이나 길갈 모두 ‘돌무더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구절에서의 초점은 그들이 돌무더기를 쌓아 올린 제단에 있다. 그 제단은 불의하며 거짓된 것이어서 밭을 고르면서 쌓아 올려 놓은 돌무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구절에서의 두운법은 소리의 정교한 연결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3. 맺는 말

위에서 호세아에 나타난 두운법 17개의 예를 설명하였다. 이 연구의 성과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지금까지 호세아에서 밝혀지지 않은 17개의 새로운 두운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두운법이라는 시적 기법의 기능에 대한 재고이다. 지금까지 두운법은 독자의 기억의 용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 제한되어 설명되어 왔다. 이 글에서 필자는 두운법을 형성하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밝혔다.

앞에서 다룬 17개의 두운법은 매우 다양한 문학적, 신학적 상황에서 활용되었다. 17개의 예를 다음과 같이 다섯 범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이스라엘 및 에브라임을 활용한 경우이다(1:4-5; 6:10; 11:3). 둘째, 이스라엘의 범죄 및 심판 선언에 활용된 예이다(2:12[14]; 4:16-17; 7:4; 7:9; 9:3; 12:8[9]; 12:11[12]). 셋째, 전치사 **לְ**을 활용한 경우이다(4:9; 7:13-16; 10:8-9; 11:4). 넷째, 여호와와 주권에 대한 강조이다(5:14-15). 다섯째, 기타로 위 범주에 속하지 않은 예이다(1:2; 8:7). 이 분류에 따르면 시인으로서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을 가졌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전치사 **לְ**의 다양한 활용은 호세아의 독특한 특징이다. ‘대항하여’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위에’라는 의미로 우상 숭배의 대상을 설명하기도 하며, 궁극적으로 야웨를 가리키는 단어로 활용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호세아의 본문은 난해하기로 유명하다. 따라서 일부의 학자들은 본문의 오류를 전제로 하고 본문의 재구성을 통해 호세아의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다. 필자는 현재의 본문을 그대로 두고 난해함을 해결하려 하였다. 호세아 본문의 난해함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북이스라엘 히브리어’를 들었다.³⁸⁾ 필자는 호세아의 난해함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인 가운데 하나로 ‘북이스라엘에서 기원된 시적 전승’을 든다. 이 글은 호세아에 나타난 시적 기법을 밝히기 위한 시도 중의 하나일 뿐 완성은 아니다. 다만 이 연구가 호세아의 본문 이해, 해석, 난해함의 해결에 기여하는데 일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Keywords)

호세아, 두운법, 히브리 시, 시적 기법, 소리 유희.

Hosea, alliteration, Hebrew poetry, poetic technique, soundplay.

(투고 일자: 2019년 7월 20일, 심사 일자: 2019년 8월 23일, 게재 확정 일자: 2019년 10월 18일)

38) Yoon Jong Yoo, “Israelian Hebrew in the Book of Hosea”.

<참고문헌>(References)

- 유윤종, “구약성서 히브리 시 평행대구 연구의 최근 동향”, 『한국 기독교 신학논총』 40 (2005), 5-28.
- 유윤종, “언어유희와 아모스의 심판신탁: 아모스 6:13-14; 7:7-9; 8:1-3을 중심으로”, 『Canon & Culture』 10 (2016), 123-146.
- 유윤종, “창세기에 나타난 야누스 평행대구의 문학적 역동성과 한글번역”, 『Canon & Culture』 12 (2018), 77-104.
- Anderson F. I. and Freedman, D. N., *Hosea*, AB, Garden City: Doubleday, 1980.
- Boadt, L., “Intentional Alliteration in Second Isaiah”, *CBQ* 45 (1983), 353-363.
- Casanowicz, I. M., *Paronomasia in the Old Testament*, Boston: Cushing, 1894.
- Hamilton, V. P.,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0.
- Hong, Seong-Hyuk, *The Metaphor of Illness and Healing in Hosea and Its Significance in the Socio-Economic Context of Eight-Century Israel and Judah*, New York: Peter Lang, 2006.
- Kakkanattu, J. P., *God's Enduring Love in the Book of Hosea: A Synchronic and Diachronic Analysis of Hosea 11,1-11*, Tübingen: Mohr Siebeck, 2006.
- Koehler, Ludwig and Baumgartner, Walt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2 vols., Leiden: Brill, 2001.
- Macintosh, A. A., *Hosea*, ICC, Edinburgh: T & T Clark, 1997.
- Margalit, B., “Alliteration in Ugaritic Poetry: Its Role in Composition and Analysis [I]”, *UF* 11 (1979), 537-557.
- Margalit, B., “Alliteration in Ugaritic Poetry: Its Role in Composition and Analysis [II]”, *JNSL* 8 (1979), 57-80.
- Newman, Judith H., “Beauty and the Aesthetics of Poetry in the Bible”, *Touchstone* 36 (2018), 14-21.
- Patterson, R. D. and Hill, A. E., *Minor Prophets: Hosea-Malachi*, Carol Stream, IL: Tyndale House, 2008.
- Pennant, David F., “Alliteration in Some Texts of Genesis”, *Biblica* 68 (1987), 390-392.
- Rendsburg, Gary A., “Alliteration”, *Encyclopedia of Hebrew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1, Leiden: Brill, 2013, 86-87.
- Rendsburg, Gary A., “Alliteration in the Book of Genesis”, Elizabeth R. Hayes and Karolien Vermeulen, eds., *Doubling and Duplicating in the Book of Genesis: Literary and Stylistic Approaches to the Text*, Winona Lake:

- Eisenbrauns, 2016, 79-95.
- Rendsburg, Gary A., “Alliteration in the Exodus Narrative”, C. Cohen, et al, eds., *Birkat Shalom: Studies in the Bible, Ancient Near Eastern Literature, and Postbiblical Judaism Presented to Shalom M. Paul on the Occasion of His Seventieth Birthday*, Winona Lake: Eisenbrauns, 2008, 83-100.
- Saydon, Paul P., “Assonance in Hebrew as a Means of Expressing Emphasis”, *Biblica* 36 (1955), 36-50.
- Sweeney, M. A., *The Twelve Prophets*, vol. I, Berit Olam,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0.
- Watson, W. G. E.,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s*, JSOTS 26, Sheffield: JSOT Press, 1986.
- Werse, N. R., *Reconsidering the Book of the Four: The Shaping of Hosea, Amos, Micah, and Zephaniah as an Early Prophetic Collection*, Berlin/Boston: De Gruyter, 2019.
- Wolff, Hans W., *Hosea*, G. Stansell, trans., Philadelphia: Fortress, 1974.
- Yee, Gale A., *Composition and Tradition in the Book of Hosea: A Redaction Critical Investigation*, Atlanta, GA: Scholars Press, 1987.
- Yoo, Yoon Jong, “Israelian Hebrew in the Book of Hosea”, Ph.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1999.
- Zaleman, L., “Ambiguity and Assonance at Zephaniah 2:4”, *VT* 36 (1986), 365-371.

<Abstract>

Alliteration in the Book of Hosea

Yoon Jong Yoo
(Pyeongtaek University)

This study purposes to show how alliteration contributes to form exegetic, contextual, and literary meaning in the book of Hosea as well as to demonstrate new examples of alliteration. Rendsburg defines alliteration as follows: “Alliteration is a literary device whereby the same or similar consonantal sounds are used to create an oral-aural effect in a sentence or verse.”³⁹⁾ Though alliteration occurs frequently in the Old Testament, it has not been paid great attention by scholars unlike other western literary traditions. The same is also true for the book of Hosea. Up till now, only several scholars have dealt with alliteration in this book and in just several verses, thus calling for a more comprehensive study on this topic. This study pursues to demonstrate alliterations in the book of Hosea. The author presents seventeen new examples of alliteration in this book, whi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1:2, לָדָּ and לָדָּ
- 2) 1:4-5, יִזְרְעֵאל and יִשְׂרָאֵל
- 3) 2:12[14], תִּאֲנַתָּה and אֲתַנְּנָה, and נִתְנָנוּ
- 4) 4:9, מַעֲלָלָיו and עֲלָיו
- 5) 4:16-17, חֲבוּר and מְרַחֵב
- 6) 5:14-15, thirteen occurrences of א
- 7) 6:10, שְׁעָרֵי־רִיחַ and יִשְׂרָאֵל
- 8) 7:4, מֵאֲפָה and מְנַאֲפִים, כְּמוֹ and כָּלֵם
- 9) 7:9, זִרְקָה and זָרִים
- 10) 7:13-16, עַל and יִלְלוּ, and יִלְלוּ
- 11) 8:7, קָמַח and צָמַח, and קָמַח
- 12) 9:3, שָׁב and יֵשְׁבוּ
- 13) 10:8-9, עַל and יַעֲלֶה, and עֲלֶה
- 14) 11:3, רִפְאָתִים and אֲפָרִים
- 15) 11:4, עַל and עַל

39) Rendsburg, “Alliteration,” 86.

16) 12:8[9], אֵין and עֵין

17) 12:11[12], גַּלְעָד and גַּלְזָל, and גַּלְיָם

These seventeen examples of alliteration can b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1) verses in which the name of Israel and Ephraim was utilized (1:2; 6:10; 11:3), 2) verses in which Israel's sins and judgment are portrayed (2:12[14]; 4:16-17; 7:4; 7:9; 9:3; 12:8[9]; 12:11[12]), 3) verses where על was utilized (4:9; 7:13-16; 10:8-9; 11:4), 4) YHWH's sovereignty (5:14), and 5) the others (1:2; 8:7). According to this classification, it is noteworthy that Hosea as a poet has been greatly concerned about criticizing Israel's sins and declaring judgment. In addition, the wide use of preposition על could be another feature of the book of Hosea in delivering the prophet's message.

In conclusion, alliteration plays greatly very important role in intensifying the poet's message by associating meaning as well as consonantal sounds. Moreover, the text of Hosea is known to be notoriously difficult. The author believes that such difficulty is caused by the lack of literary and linguistic understanding to the text of Hosea.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overcoming such difficulty of the text of Hosea.